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을 위한 기술창업·지역창업 지원방안 논의

- 1.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전 스타트업 파크, KAIST를 방문하여 창업·성장관련 현장목소리 청취
-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본격 실시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2.2일(월) 대전 스타트업 파크와 KAIST 창업원을 방문하여 대전 지역 창업 생태계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창업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적인 창업 열풍 조성을 위해 지역 창업거점 확충과 과기원 중심의 기술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그 후속 조치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대전 스타트업 생태계 현장방문 개요 >

- ▶ (일자) '26.2.2.(월) / ▶ (장소) 대전 스타트업 파크, KAIST 창업원 등
- ▶ (참석자)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대전 스타트업파크, KAIST 창업원 원장, 예비 창업가, 창업기업 등

또한, 금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밀착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00곳 이상의 예산 현장을 방문하는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 대전 스타트업 파크 】

조용범 예산실장은 먼저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방문하여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입주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비수도권 창업 기업이 법인 설립부터 스케일업까지 성장 전주기에 걸쳐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였다.

스타트업파크는 지역 내 창업자, 투자자, 보육기관이 한 공간에 입주하여 자유롭게 교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창업 인프라 사업으로, 대전, 인천 등 5개소가 구축 중이다. 현재 대전 스타트업 파크 내에는 120개 기업이 입주 중이며, 린솔, 에브리심 등 5개 기업이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빠르게 성장 중이다. '26년 예산은 기존 5개소에 신규 3개소를 추가하여 총 8개소에 대해 35억원을 반영하였다.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입주기업은 “스타트업 파크라는 거점을 통해 맺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초기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창업 이후 스케일업 과정에서 후속 투자유치, 판로 확보, 우수인재 영입 등에 어려움이 크다”며, “지역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지역 창업 거점 확충을 위해 '26년 예산에 스타트업 파크 신규 3개소를 추가 반영(전주, 울산, 제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창업거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업 이후에도 지역 기업이 폐업의 굴레에 빠지지 않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KAIST 창업원 】

이어서 조용범 예산실장은 KAIST 창업원을 방문하여, KAIST에 재학 중인 예비 창업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과학기술원 중심의 기술 창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KAIST 창업원은 과학기술원 재학 중인 우수 인재의 첨단기술 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14~'23년 기간 동안 1,914개 창업을 지원하고, 20개 기업의 상장을 지원해 왔다. 창업원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한 학생 창업가는 “공유 오피스 제공, 시제품 제작 단계 지원이 크게 도움이 됐다.”면서도, “첨단기술은 개발·검증기간이 길고 규제·인증 부담도 커서 팀구성·초기자금·연구장비, 투자자 네트워킹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그간 KAIST의 창업 성과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혁신 동력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KAIST가 보유한 우수 인재와 원천 기술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및 사업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KAIST의 검증된 창업 성공모델을 다른 과기원으로도 적극 확산하여 4대 과기원을 ‘초혁신 창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고, 국가 전체의 창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은 이번 조용범 예산실장의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들이 향후 '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책임자	과 장	김정애 (044-214-2730)
		담당자	사무관	이승민 (sseung513@korea.kr)
	기획예산처 과학기술혁신예산과	책임자	과 장	이종진 (044-214-2770)
		담당자	사무관	김기문 (krrard419@korea.kr)